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 율법주의 제목 : 예수님의 개혁 성경 : 누가복음 6장 1-5절

1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어 먹으니

2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정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눅6:1-5)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죄인들과는 싸우지 않으셨다.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과 싸우셨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

(사람마다 자신이 의인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일부러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려는 경향도 강하다. 그러므로 용감하지 않는 이상 회개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으로 흐를 경향성이 강하게 된다.)

당시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면서 학식과 부를 겸비하고 있어서 주로 정계에 종사하고 있는 기득권층이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사람들로 율법에 몰입되는 경향을 보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학자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로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리더들이었다.

이들 율법주의자들 시각에서 볼 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단스러운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늘까지도 자신들의 오류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고질적인 것이면서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바울)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그 핵심은 십계명이다.(정결법, 속죄법-형사적, 속건법-민사적) 율법주의는 율법을 해석하면서 만들어낸 사람들의 계명이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밀밭으로 지나가지 말라. 손으로 밀을 따 먹지 말라.)

율법의 기능

- 죄를 깨닫게 한다.
- 삶의 기준이 된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죄가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며, 생각의 틀을 형성 시켜준다.
- 기독교 율법은 어느 사회의 규범보다 우수하며 효과적이며 합리적이며 편리하다.

왜 율법주의가 발생하는가?

-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 율법도 학습을 통해서 습득된다.
- 율법이 학습되면서 강압적으로 학습된다든지,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쪽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면 율법주의로 고착화된다.
- 즉, 벌을 피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학습된다.
- 율법의 정신이 학습되기 전에, 율법의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 그리고 율법을 배울 때의 강압과 무시당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를 강압하며 무시하는 것이 되풀이된다.

-또는 자신만의 어떤 은사나 재능이 있는데 그것이 미리 더럽혀지면 율법외에는 다스릴 방법이 없다.

(만약 율법이 경이롭고 신비스럽고 존중하는 가운데 학습이 이루어지면 아무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율법이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율법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는 본을 보여야 하고, 교회는 전문적인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율법의 순기능

-율법이 제대로 학습된다면 아이는 율법을 씨앗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삶에서 율법을 꽃피우게 된다. 율법이 아이에게 길을 제시하며 생각하는 법칙을 깨우치게 한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과 유익한 길을 찾아가게 된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관련된 행동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율법에 대해서 잘 학습이 되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유익하고 편리하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게 된다.

-율법의 유익은 아이들이 새로운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행복하고 정당하고 떳떳하게 잘 살수 있게 한다.

율법주의의 부작용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남에게 비난받지 않으려는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 율법정신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전체적인 행동 양식을 이루게 되면, 의례히 하는 행동이 되어서 심지어 악한 것이라도 지속적인 문화를 이루게 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간을 놓치면 전구도 켜지 못한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가장 적절한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 확실하지만, 결코 그들을 제거하거나 무시하거나 적대적으로 대우하지는 않으셨다.

-다만 그들을 위해 우셨고, 안타까워 하셨고, 닭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하셨다. 즉,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신 것이다.

-율법주의 타파가 교회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 피해를 입거나 율법주의에 감염되거나, 고질병에 걸리면 손해가 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16:11-12)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개혁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핵심은 성령운동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율법주의 제목: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 로마서 8장1-17절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란 율법주의를 말함.

-생명의 법이란 살리는 법이란 뜻. 성령이 생명 그 자체이시니 성령충만이 생명충만.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죄로 오염된 사람을 뜻함. 세포가 아니라. 특히 육신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습관화 된 죄, 저주가 되어 세습된 죄를 의미함.(혈통)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육신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함.

-육신의 정결문제를 해결하심.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이미 대가를 지불하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됨.

-그러나 여전히 죄에 거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게 되고, 계속 속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먹음같이,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그 우리 속으로 들어감 같다.

-성령충만의 가능성이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자.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따라서 죄를 따르지 않아야 함.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죄를 범하게 되며, 또는 성령에

순종하게 됨.

- 율법의 요구란 원래의 율법의 기능 중 하나인 영생을 위한 법 정신. 율법의 원래의 목적.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8:1-17)

- 성령은 진리의 영.
- 성령의 사람은 죄인에게도 최선을 다하게 된다.
-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 그렇지 아니하면 또 다시 나의 양심이나 나의 경험들이나 나의 학습된 것들이나, 나의 습관들이 나에게 율법주의가 된다.
-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때 성경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와 영적 리더십과 영적 장막이 중요하다.